

EC만의 영어수업 특징



EC에서 제공하는 영어수업은 주제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반 학생 전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도법이 토대가 됩니다.

EC에 오시면 수업시간표나 교과서에서 '문법', '리스닝', '어휘' 등의 표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본교의 신념은 '언어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익혀야 한다'입니다. 이를 모토로 전문적인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즐거운 수업 분위기 조성을 꾀합니다. 매일 또는 매주 정해진 주제에 따라 수업을 듣다보면 어느새 회화, 리스닝, 발음, 어휘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균형 있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매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교사는 반 학생들에게 언론매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신문을 잘 읽지 않나요?', '연예 기사를 다룬 잡지는 잘 팔리나요?', '신문이나 TV가 반드시 진실을 전달한다고 생각합니까?' 등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인만큼 놀랄만한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까지 너무도 당연하다 생각했던 일들이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되기도 합니다.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쓴 짧은 에세이를 읽기도 합니다.

반 친구들과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는동안 자연스럽게 수업에도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즈음이면 관련 매체를 원어로 읽어보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 접하는 단어는 그 자리에서 직접 선생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과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제대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때, 선생님이 "그럼 ___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었나요?"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앞뒤 문맥으로 대략 이해는 된다고 생각했던 문장 속에 실은 지금껏 배워본 적 없는 문법이 담겨 있습니다. 문법책에서 리포트 형식의 전달문에 대해 공부할 때는 좀처럼 머릿속에 잘 들어오질 않았는데, 이러한 표현이 빈번히 사용되는 언론매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다보니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선생님의 설명은 더욱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에 더하여 연습문제 등을 통해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표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본인의 생각은 어떻게습니까?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니 나만의 의견을 말하기도 쉬워집니다. 에세이를 읽고 느낀 점, 자신만의 생각 등도 자유롭게 반 친구들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짧은 인터뷰를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해 학습합니다. 바로 리스닝연습이지요.

리스닝이 약한 학생도 방금전에 같은 내용의 단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듣고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발음이 어려운 단어 등을 반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기도 합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이면 선생님이 작문 숙제를 내줍니다.

반 친구들과 나누었던 모국의 언론매체 상황에 대한 의견이나 저널리스트가 쓴 에세이에 관한 감상문 등에 대하여 짧은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수업에서 배우고 생각해본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며 수업 중에 제대로 발언하지 못한 내용을 시간을 들여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새로 배운 단어나 문법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습효과도 거둘 수 있고 단어암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EC에서 사용하는 교재에는 이같은 '주제거리'가 다양하게 실려있지만, 언뜻 무작위로 선택된 듯 보여도 실은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학습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 아래 구성된 교과서입니다. 즉, 여러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 해당 레벨에 필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EC만의 영어수업 특징



EC는 기본 수업뿐만 아니라 영어학습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EC에서는 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수업 외에도 선택수업, 영어 과외활동, 일반 과외활동 등을 통하여 영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목적,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 등에 따라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 자신만의 차별화된 어학연수 스타일을 찾아보십시오.

추가적인 선택수업을 통하여 약점도 극복하고 기회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중심 수업을 통하여 문법은 물론 회화연습도 하지만 좀더 회화연습의 기회를 늘리고 싶거나 귀국 후 TOEIC 시험을 볼 계획이므로 시험준비도 해야하는 등 같은 영어를 공부하지만 개개인에 따라 약점이나 중요시 하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바로 주 24/30 레슨 수강생들만이 들을 수 있는 '선택수업'입니다.

<전 센터 공통 기본 선택 수업 예>

- 회화중심
- 비즈니스 영어 입문
- 실전 영어를 위한 문법 활용
- 아카데미 및 시험대책 입문

<각 센터별 특별 선택수업 예>

- 영어로 블로그 작성하기
 - 요리로 배우는 영어
 - 영화로 배우는 영어 등등
- (시기나 센터별로 내용은 다릅니다)

영어 과외활동

더욱더 영어공부를 하고 싶고 영어를 접할 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EC에서는 무료 영어 과외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화 클럽: 학교 라운지나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클럽활동입니다. 학교 선생님 또는 다른 반 친구들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회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EC 보스턴에서는 현지 대학생이 EC를 방문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음 클리닉: 나라별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습관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발음이나 특정 발음을 집중적으로 교정받는 발음 클리닉. 동일한 발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만 모여서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부끄러워 할 필요없이 마음껏 연습할 수 있습니다.

특별강좌: 각국의 문화나 시사 또는 관심주제 등을 준비해 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외활동입니다.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거나 리포트를 제출하는 등 귀국 후에 영어를 사용하여 일을 하거나 영어 프리젠테이션 등을 해야하는 경우를 대비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활동

관광, 인터내셔널 파티, 피크닉, 계절별 이벤트 등 EC에서는 레크리에이션 감각의 색다른 과외활동이 매일 제공됩니다. 흥미를 느끼는 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다양한 친구들을 만들어보는 방법도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아카데미 이어 코스 수강생(24주 이상)은 이상의 다양한 수업 외에도 학습 지원, 상담 등의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십시오.